

아시아 전통문화양식의 전개과정에 관한
비교 문화연구(제 1 보)

— 근대 동남아시아 민속복식을 중심으로 —

유혜경* · 홍나영 · 이주현 · 김찬주*

*인천대학교 의생활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Comparative Study of Asian Ethnic Dresses(Part I)

Haekyung Yu* · Nayoung Hong · Juhyeon Lee · Chanju Kim*

*University of Incheon,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1998. 7. 14 접수)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vestigate how ethnic dresses are adopted into modern fashion designs. This research focuses on Japan and Vietnam as a part of an ongoing larger project which examines ethnic dresses of five Asian countries. Fashion designs with influences of Japanese and Vietnamese ethnic dresses were analyzed in order to explore how ethnic dresses coexist with "world fashion" in contemporary society.

Eight fashion magazines were examined and the pictures of either Japanese or Vietnamese influences were identified. A total of 66 pictures for Japan and 5 for Vietnam were analyzed in terms of eleven characteristics on zero-to-three scales according to authenticity of each characteristic. The characteristics included shape, item, silhouette, color, material, textile print, decorative details, method of dressing, accessories, hairstyle and make-up.

The results showed that textile prints and color of Japanese ethnic dresses, and item, silhouette and hat of Vietnamese dresses were most frequently adopted in modern fashion designs. These suggested that fashion world adopts the most distinctive and easy-to-copy characteristics of the ethnic dresses when the designers wanted to incorporate the styles of ethnic dresses.

Key words: ethnic dress, Kimono, Ao Dai, ethnic look, modern fashion; 민속복식, 기모노, 아오다이, 에스닉룩, 현대패션

본 연구는 1997학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I. 서 론

20세기를 마감하는 이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지구촌시대가 가속화되어 지구 어느 곳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변화의 영향이 빠른 속도로 전세계에 미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전반에 걸쳐 어떠한 양식도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으며, 따라서 문화양식의 유사성과 동질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개인 또는 집단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복식에 있어서는 한가지 또는 소수의 스타일만이 유행되고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나 다수의 스타일이 공존하며 또한 다양한 문화의 스타일이 혼합되어 개인과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복식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²³⁾.

이에 따라 민속복식은 여러 측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느 때보다도 민속복조의 의상(ethnic look)이 유행하고 있고, 개개인이 다양한 민속복식의 일부분을 채택하여 개인의 스타일로 창조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구촌시대의 문화속에서 다양한 복식의 존재에 관한 설명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현대 복식문화에서 민속복식과 그 응용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구복식이 주종을 이루는 현대사회에서 아시아 민속복식이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어떠한 민속복식이 또는 복식 요소가 왜, 그리고 어떻게 오늘날까지 존재하였고 사라졌으며, 그들 전통복식 양식의 요소중 어떠한 요소들이 서양 복식문화에 나타났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세기 유행흐름에서 에스닉(ethnic) 테마로 등장하여 뚜렷하게 세계적인 주목으로 받고 있으며 그들의 독특한 복식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라고 인정되는 아시아 4개국(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한국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첫단계로 이 논문에서는 일본과 베트남 민속복식을 중심으로 민속복식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동향, 그리고 현대패션에 나타난 민속복조의 디자인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위하여, 문헌고찰과 아울러 잡지 및 작품집으로부터 민속복조의 디자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민속복식이 세계복식과 공존하며 전개되고 수용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피므로써, 지구촌시대 민속복식의 미래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이 만연한 현대 복식문화에서 과거 지향적인 민속복식을 새롭게 정의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비교문화적인 연구로서 학문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민속복식의 정의 및 특성

복식은 인간이 사회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도구로 인정되고 있다. 복식이 표현하는 개인의 특성 중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개인의 정체성(identity)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착용한 복식은 개인이 속하는 또는 속하지 않는 하위집단을 나타냄으로써 착용자는 자신이 속하는 또는 속하고자 하는 집단의 구성원들과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이 속하지 않는 집단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

복식이 나타내는 개인의 정체성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차원은 성별(gender)과 종족정체성²⁴⁾(ethnic identity)이라고 하겠다²⁵⁾. 이때 종족정체성이란, “과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개인 또는 집단의 문화적 유산에 의거한 정체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²⁶⁾. 종족정체성을 유지하거나 나타내는데는 언어, 종교와 함께 문화적 패턴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²⁷⁾, 따라서 종족정체성을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²⁸⁾. 여기에서 문화적 패턴이란 복식, 무용, 음식, 미의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종족정체성의 정의에 따라, Eicher와 Sumberg는 민속복식(ethnic dress)²⁹⁾을 “문화적 유산을 표현하기 위해 착용되거나 장식되어져서, 집단구성원의 과거를 나타내는 전통의 의복, 장신구와 기타 신체장

1) ethnic identity를 민족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민족이 대체로 국가를 이루는 종족을 일컫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종족정체성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였음.

2) ethnic dress는 혈연으로 연결된 종족에 속한 복식이라는 의미보다는 종족과 연관된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의미가 강하므로, 이를 종족/민족복식보다는 민속복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함.

식"이라고 정의하였고, 현대사회에서 민속복식은 지구촌의 일부 사람들이 착용하는 복식이란 점을 강조하였다⁹⁾. 그리하여, 민속복식은 전세계인들이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복식(티셔츠, 청바지, 남성 정장 슈트 등)으로 정의된 세계패션(world fashion) 또는 국제도시패션(cosmopolitan fashion)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또한, 현대인들은 세계패션의 의복과 민속복식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시간, 장소, 경우에 따라서 적절히 배합하여 착용한다고 하였다.

민속복식¹⁰⁾은 또한 국가복식·국민복(national dress)과 분명히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같이 하나의 국가가 단일 종족과 문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민속복식은 국가복식(national dress)과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중국과 같이 여러 종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민속복식은 그 국가가 포함하는 종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고, 국가복식과 민속복식은 다른 형태의 복식을 지칭하게 된다. 민속학 인류학 등에서는 민속을 서민들의 풍속으로 정의하여 각 지방마다 발달된 복식풍속이란 점에 초점을 두어 민속복식(folk costume)이라고 하고, 민속복은 상류층이 아닌 서민층 복식의 의미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류학계에서는 민속복식이란 용어를 사회계층이나 계층, 일상복을 구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류층의 복식을 포함한 서구화 이전의 복식이란 의미에서 전통복식이란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¹⁰⁾.

한편 민속복식의 학술적 정의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민속복식이란 개념은 서구사회에서 서양복식(western dress)을 제외한 복식의 의미로, 즉 비서양복식(non-western dress)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¹¹⁾. 이때 서양복식이란 14세기경을 기점으로 하여 기독교정신과 체제의 배경 안에서 전개된 복식을 일컫는다¹²⁾. 이런 경우, 민속복식이란 유럽계 백인들의 자민족중심주의적(eurocentrism) 입장에서 정의된 것이며, "non-industrial", "primitive", "peasant"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Eicher와 Sumberg(1995)의 "세계패션"

과 "민속복식"도 현대 아시아의 복식문화론 잘 설명한다고는 할 수 있으나, 서양복식의 체계모니를 인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Eicher와 Sumberg는 세계복식이 서양복식뿐만 아니라 동양복식의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세계복식은 동서양 대비에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세계패션"이란 결국 파리를 중심으로 한 서양패션세계의 체계에 의해서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⁹⁾.

또한, 민속복식은 보통 "전통복식(traditional dress)"이라고도 불리우며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제된 양식으로 흔히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민속복식도 현대패션에 비하여 변화의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와 정도는 그 사회의 변화와 같이며, 따라서 극적인 사건이(예를 들어 전쟁) 발생하는 경우 민속복식은 매우 빠르게 또 크게 변화하게 된다¹³⁾. 따라서 "전통복식"이라고 지칭하며 고정된 유형의 민속복식만을 주장하는 것은 민속복식을 박제화하는 것이며, 많은 경우 그 문화에 속하지 않는 외부인들 또는 구성원들에게도 민속복식과 그 문화를 신비한(exotic) 존재로 나타내려 하거나, 많은 경우 상품화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민속복식은 다른 문화와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며, 그러나 다른 문화형식을 그대로 모방하기 보다는 재창조하여 그 문화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제시하는 고유화 과정(authentication)을 거치게 된다^{14,15)}. 그러므로 어떤 민속복식에서는 다른 문화의 영향을 찾아볼 수는 있으나, 그 상태는 원래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한정된 지역과 과거에 근거하였던 민속복식은 지구촌시대가 진행되면서, 다른 단계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즉, 민속복식의 근간이 되는 민족정체성은 과거의 전통에 의거하는 개념이기보다는, 다른 문화의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혼합하여 그들의 "스타일"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¹⁶⁾.

이러한 주장들은 다양한 복식의 요소들이 혼합되고, 자신이 속하는 타민족집단의 복식도 널리 수용하는 오늘날의 복식현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제안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민속복의 요소가 혼합되고 채택되는 과정이며,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도 복식이 전

3) 일본에서는 민속복식과 함께 민족복식이란 용어를보다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의 민족복식은 국민복(national costume)이 아닌 민족복(volk costume)을 말한다(문광회역, 杉本正年(저), 동양복식사는 고, 경춘사, 1995, 3-8).

개되는 방향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민족정체성이 끊임없이 변화되지만,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화될 수 있으며 문화적 스타일이 민족정체성에 근간을 이룬다는 것을 고려할 때, 민족복식에 대한 연구는 현대인의 정체성에 관한 관심과 아울러 더욱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2. 민족복식연구

민속복식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초반에 서양인들이 서양문물을 접촉하여 급격한 변화에 휘말리게 된 “비서구세계”에 대해 낭만적인 감상을 가진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17,18)}. 단순한 여행일지, 스케치를 통해 민속복식을 기록한 것에서 시작하여, 관찰 민속서술기법 등을 이용한 인류학적 접근, 고고학을 접목한 재복원(再復原)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어져왔다. 그러나, 많은 민속복식연구들은 역사적인 변화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고찰하고 이론적 설명을 추구하여 학문적 체계를 세우기 보다는, 지역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연관짓기 어려운 독립적인 예로서 민속복식을 다루어왔다¹⁹⁾.

한편, 사례연구형의 민속복식 연구와는 다른 방향의 민속복식 연구로서 서양복식에 나타난 민속복식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최근 코토의상박물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Japonism”은 서양미술과 복식에 나타난 일본문화의 영향을 소개하고 있다. 이 박물관의 연구결과는 일본적물, 나전칠기문양 등이 서양복식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후 기모노의 형태가 S형 실루엣에서 탈피한 서양 여성복식에, 또한 70년대의 일본 디자이너들의 실험적인 디자인들 통하여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고 있다²⁰⁾. 또한, Kim과 Delong²¹⁾은 서양잡지에 나타난 복식스타일을 연구한 결과, 동양복식의 영향이 라운지웨어(lounge wear)와 같은 개인적인 의복에서부터 시작되어 공적인 자리에서 입는 의복에까지 나타나게 되고, 이런 단계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서양문화에 통합되고 흡수된 상태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민속복식의 요소들이 나타난 서양복을 과연 민속복식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즉, 복식은 유동적이며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문화의 복식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요소의 의미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면, 제공한 문화 또는 민족집단과 연결지

어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적 디자인(japanese design)”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일본출신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도 자신의 디자인이 일본적 디자인이라는 견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²⁾.

그런가 하면, 민속복식을 그 문화에 속하지 않는(또는 아무 연관을 지을 수 없는) 소비자가 착용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²³⁾. 이러한 연구들은 민속복식을 포함한 민속공예품의 마케팅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민속복식을 구매하는 구매동기 등을 분석함으로써, 민속복식의 착용과 구매행동을 개인적인 특성과 추구 의점을 연관시켜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는, 관광상품 또는 공예품 차원의 민속복식 뿐만 아니라, 좀 더 대중화될 수 있는 의복상품으로서의 민속복식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의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민속복식을 과거의 시간 테두리에서 한정시키는 것보다는 현재에 존재하며 끊임없이 변형되고 재창조되는 문화양식으로 현대와 미래가 연결되는 시간공간안에서 다루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서양복식의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민속복식이 매우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거나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민속복식을 현대사회안에서 재조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세계적으로 착용되는 서양복식에 민속복식이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민속복식이 공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현대 의상에 반영된 민속복식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한 후 질적 분석 및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현대 의상들을 디자이너 브랜드, 대중적 브랜드, 거리 패션 등 3개 부류로 분류하고, 각 부류에 해당되는 자료원들을 조사하였다. 디자이너 브랜드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원으로는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의 매 시즌 컬렉션을 담은 Collezioni(1990~1997)와 MODAIN(1991~1997), Fashion Show(1991~1997) 등의 잡지가 사용되었다. 대중적 패션을 수집하기 위한 자료원으로는 Vogue

America(1982~1995)와 Vogue Korea(1996~1997), Elle Korea(1992~1997) 등이 선정되었으며 거리패션을 조사하기 위한 자료원으로 Street(1991~1997), Bravo(1950~1995)가 사용되었다. 이들은 국내의 패션뿐 아니라 세계적인 패션 트렌드를 보여주는 잡지들이므로 본 연구의 자료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일본과 베트남 민속복식의 특징을 문헌과 연구자들의 토론을 통하여 설정하였다. 그 특징에 의거하여 잡지들에 실린 현대 의상들 중 일본, 베트남의 민속복식의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된 의상사진들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일본 민속복식의 영향이 반영된 66개 사례, 베트남 민속복식의 영향이 반영된 5개 사례 등 총 71개의 사례가 수집되었다.

이와 같이 수집된 현대 의상 사진들을 대상으로, 양국 민속복식의 특징적 요소들이 의상에 반영된 정도를 내용분석하였다. 이때, 사진들은 11개 측면(형태, 복종, 실루엣, 색채, 소재, 직물문양, trimming, 착용방법, 장신구, 헤어스타일, 화장)에 따라 분석되었다. 즉, 각 측면에서 민속복식의 특징이 반영된 정도를 4점 등간척도(반영된 바 없음 또는 판단 불가능=0점, 상징적 반영=1점, 약간의 변형=2점, 그대로 재현=3점)에 의하여 강도집계하였다. 강도집계의 자료에 대하여 MS-Excel software를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 과

현대 의상의 11개 측면 중 민속복식의 영향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측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즉 <표 1>에 제시된 현대 디자이너 의상의 11개 측면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에서, 국가×측면별 점수소계가 국가별 사례빈도×1점(상징적 이미지만 구현된 경우)이상인 점수를 나타낸 것은 그 국가의 민속복식의 영향이 상징적 이미지보다 강하게 현대 디자이너 의상에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기준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는 측면들은 민속복식의 영향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복식에서는 직물문양과 색채가, 베트남복식에서는 복종(服種; 복식의 item), 실루엣, 장신구에서 민속복식의 영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가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본 민속복식의 특징적 요소들이 반영된 현대 의상의 고찰 결과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본 민속복식의 영향은 현대의상의 직물문양에 특히 두드러지게 반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현대 디자이너의 작품에서 재현된 직물 문양들은 일본의 전통적 복식인 기모노의 문양이 두드러지게 많았다([그림 1], [그림 2] 참조).

일본의 에도시대에 시민계급이라 할 수 있는 町人(테이인)이 출현하면서 줄무늬나 침착한 색의 기모노에 안감이나 부분적인 문양으로 화려함을 약간 가미하는 '이끼(粹)'라는 미의 범주가 나타나게 되는데, 전통적 기모노의 직물 문양이 재현된 현대 디자이너 작품에서 이와 같은 전통 색채와 문양이 그대로 재현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Meller와 Elffers(1991)는 일본이 1857년에 서방국가들과의 교역을 시작한 이래 일본의 전통적 직물 문양은 전통 공예, 미술품들과 함께 서구에 소개되었는데 이때 일본의 공예와 미술은 고대 그리스에 필적할 만한 뛰어난 문화예술품으로 높이 평가 받았으며, 이 시기부터 일본의 전통적 직물문양은 서구의 직물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특히 일본 직물문양 디자인의 양식화된 모티브를 융통성있게 표현하는 렌더링 기법, 비대칭적 레이아웃 등은 새로운 디자인 테크닉으로서 서구의 직물디자인계에 받아들여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일본 전통 문양이 현대 의상의 직물문양에 자주 재현되는 경향을 발견한 본 연구의 결과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통 기모노의 문양인 꽃 문양, 기하학적 문양들 외에도 일본의 전통 수목화도 문양화되어 현대디자이너 의상에서 자주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일본의 전통적 일상복인 남·녀용 기모노는 당은 현대 디자이너들에 의하여 서구복식의 디자인과 접목되거나 현대적인 형태, 복종, 실루엣으로 변형되고 재창조되어 왔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그림 1], [그림 2] 참조). 특히 전통 기모노의 장식인 오비(帯)는 현대 디자이너 의상에서 매우 자주 응용되는 장식으로서, 현대 디자이너들은 오비의 형태와 특징을 그대로 재현하기 보다 sash, belt, string belt 등 보다 평면화된 형태로 변형시키거나 상징적 이미지만 나타내는 형태로 응용되어 현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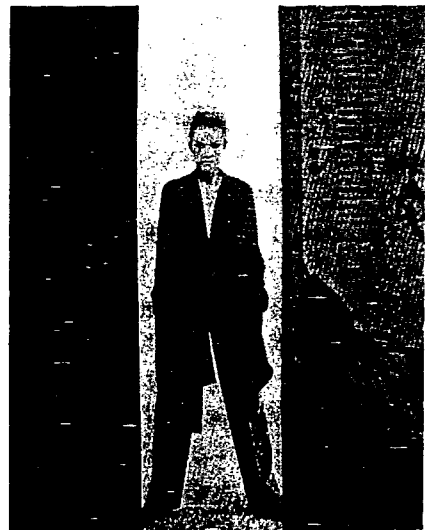
<표 1> 일본과 베트남의 민속복식이 반영된 현대의상 분석결과

국가	점수	민속복식의 영향이 11개 측면에 반영된 정도의 빈도분포																						
		형태		부종		실루엣		색채		소재		직물문양		장식		착용방법		장신구		헤어스타일		화장		국가별합계 빈도 × 점수합계
		빈도 × 점수	빈도 × 점수	빈도 × 점수	빈도 × 점수	빈도 × 점수	빈도 × 점수	빈도 × 점수	빈도 × 점수	빈도 × 점수	빈도 × 점수	빈도 × 점수	빈도 × 점수	빈도 × 점수	빈도 × 점수	빈도 × 점수	빈도 × 점수	빈도 × 점수	빈도 × 점수	빈도 × 점수	빈도 × 점수			
일본	0점	29	0	36	0	42	0	32	0	51	0	18	0	53	0	46	0	61	0	63	0	63	0	410
	1점	22	22	14	14	14	14	13	13	4	4	17	17	7	7	7	7	2	2	2	2	0	0	
	2점	15	30	15	30	7	14	9	18	8	16	11	22	5	10	10	20	3	6	1	2	1	2	
	3점	0	0	1	3	3	9	12	36	3	9	20	60	1	3	3	9	1	3	0	0	2	6	
	측면별 빈도×점수 소계	52		47		37		67		29		99		20		36		11		4		8		
일본 민속복식의 영향이 반영된 현대 의상 사례수(빈도)=66																								
베트남	0점	3	0	2	0	2	0	3	0	2	0	4	0	3	0	3	0	1	0	5	0	5	0	54
	1점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0	1	1	0	0	0	0	
	2점	1	2	2	4	1	2	0	0	2	4	0	0	0	0	0	0	2	4	0	0	0	0	
	3점	1	3	1	3	2	6	2	6	0	0	1	3	2	6	2	6	1	3	0	0	0	0	
	측면별 빈도×점수 소계	5		7		8		6		5		3		6		6		8		0		0		
베트남 민속복식의 영향이 반영된 현대 의상 사례수(빈도)=5																								



SPORTMAX

[그림 1] 기모노의 영향이 반영된 현대 디자이너 의상 (Modain, No. 103, p. 40)



[그림 2] 기모노의 영향이 반영된 현대 디자이너 의상 (Elle, 97. 8, p. 207)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민속복식 중 특히 기모노의 직물문양, 형태, 실루엣, 오비 장식 등은 현대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빈번히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기모노의 감싸임은 (wrapping) 착용방식과 독특한 직물문양은 현대패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 Martin과 Koda의 진술²⁴⁾과 일치한다.

한편 본 연구의 내용분석 자료 중 일본 민속복식의 형태가 변형되어 사용되거나 재현된 디자이너 의상 12 점을 살펴본 결과, 이 중 총 5점의 작품에서 일본의 민속복식 중 남녀의 기모노 외에도 남성의 전통적 정장인 하오리하카마(상의와 풍성한 바지 set), 서민 남성의 모모히끼(股引, 종아리 부분이 비교적 타이트한 바지), 무사의 가타키누하카마(肩衣袴), 가미시모(袴) 등이 현대 의상의 형태에 응용되어 왔음이 발견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일본의 민속의상이 세계에 소개된 이래, 일본민속문화에 익숙치 않은 서구의 패션 디자이너들은 남녀의 민속복식을 구분하지 않고 그들의 작품에 아이디어로 적용하여 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성적인 매력과 여성복식을 연관지어 온 서구 복식의 전통적 규칙을 무너뜨리는 데에 기여하였다는 Martin과 Koda의 설명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2. 베트남 민속복식이 반영된 현대 의상의 고찰결과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베트남의 민속복식의 특징이 현대 의상에 반영된 사례는 총 5개로, 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국가×분석항목별 소계 점수가 국가별 빈도 1점을 넘는 것들을 민속복식의 특징이 상당히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기준을 두고 빈정하였을 때에 베트남의 민속복식은 현대 의상의 복종, 실루엣, 장신구에 특히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베트남 민속복식의 영향이 반영된 현대 디자이너 의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베트남의 민속의상인 아오다이(Ao Dai; 타이트한 드레스와 바지를 갖추어 입는 복식)와 아오바바(Ao Baba; 상의와 바지를 갖추어 입는 복식)는 현대디자이너 의상의 실루엣과 복종에 적용되어 왔으며 전통적 삼각형 고깔모자는 현대 의상의 장신구로서 응용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아오다이는 20세기 초에 서양복식의 요소가 도입된 형태로 개조되어 인체의 곡선을 살려주는 실루엣으로 이미 서구화된 복식이므로 서구 패션의 복종과 실루엣에 쉽게 접목되고 응용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아오다리와 아오바바는 바지를 함께 갖추어 입는 복식이라는 점에 있어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현대 패션



[그림 3] 아오다이의 영향이 반영된 현대 디자이너 의상 (Elle, 94. 3. p. 138)



[그림 4] 아오다이의 영향이 반영된 현대 디자이너 의상 (Elle, 97. 10, p. 216)

의 흐름에 부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베트남전이 종전된 이래 전쟁을 겪는 동안 피폐해진 고유 문화를 재건하고자 하는 바램 아래 베트남인들이 아오다이를 베트남 문화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주요 상징으로 여기고 이를 보존하고 생활화하고자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오다이는 현대 디자이너 의상에 응용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동안의 베트남의 국가적 위상과 베트남전쟁 종전후 최근까지 서방세계와 단절되어 있었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⁹⁾.

V.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속복식이 세계패션 속에서 존재하는 양상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민속복식이 거의 변형되지 않은 채 전통형식에 가깝게 보존되는 경우와 민속복식의 일부 또는 상당부분이 여러 방향으로 변화·응용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민속복식의 영향이 나타난 현대 디자인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민속복식이 응용된 디자인을 내용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본의 경우 직물문양이 가장 자주 선택되었는데 이는 일본 전통직물이 19세기부터 서양 직물업계가 받아들여졌고, 직물문양이 다른 복식디자인 요소(예를 들어 착용방법)보다 쉽게 응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일본 민속복식의 경우 직조방법과 염색기법이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여서 일본 복식요소 중 무엇보다도 직물문양과 색상의 영향이 두드러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베트남 아오다이의 실루엣과 같이 현대패션의 흐름과 일치하거나, 기모노의 평면디자인과 베트남의 아오다리와 아오바바의 바지를 긴 옷과 같이 착용하는 양식 등과 같이 현대 생활에서 실용적이며 편안한 복식으로 응용될 수 있는 특성들이 현대의상에 자주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민속복식이 응용되는 경우를 종합하여 보면, 현대생활과 현대 패션경향에 적합하고 응용되기가 쉬운 요소들이 채택된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끌어 낼 수 있겠다. 또한, 베트남의 삼각형 모자, 일본의 게타와 부채 등이 자주 등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의복보다는 장식품 또는 소품이 채택되기 쉽고, 그러면서도 민속복식의 분위기를 강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것

로 생각된다. 이런 경우, Martin과 Koda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응용되는 사례는 원래의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Rogers와 Shoemaker²⁸⁾는 한 문화양식에 다른 문화양식이 채택되는데는 가시성(observability), 상대적 우위(relative advantage), 적합성(comparability), 복잡한 정도(complexity), 시도 가능성(ability to put to trial)의 5가지 변수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들 변수에 비추어 보자면, 일본 직물문양인 경우는 상대적 우위, 적합성, 시도 가능성등에서 유리하였기 때문에 많이 응용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에 비하여, 기모노 스타일은 복잡하지 않은 단순성, tailored된 서양복식의 대안으로의 적합성 등에서 유리하다고 사료된다. 그런가 하면, 베트남의 아오다이는 무엇보다도 서양복식과의 적합성에서 그리고 모자와 같은 소품은 쉽게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주 채택된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민속복식이 현대사회와 미래에 존재하고 전개될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문화의 혼용과 채택을 고유문화의 의미와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가 계속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론과 실증적 분석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패션디자이너들과 산업체에서 우리 문화의 고유성이 드러나는 디자인을 창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주 및 참고문헌

- 1) Costa, J. & Bambossy, G.(1995). *Marketing in a Multicultural World*. California:Sage Publication, Inc.
- 2) Davis, F. (1992).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3) Kaiser, S. (1997).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Second edition revised, NY: Fairchild Publication.
- 4) Burnes, R. & Eicher, J. (1992). *Dress and Gender*, Providence: Berg.
- 5) De Vos, G., & Romanucci-Ross, L. (1975). *Ethnic Identity: Cultural Continuities and Chan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6) De Vos, G.(1975). Ethnic pluralism: conflict and

- accomodation, In George De Vos & Lola Romanucci-Ross(Eds) *Ethnic Identity*, California: Mayfield Publishing Company, 5-41.
- 7) Reminick, R. (1983). *Theory of Ethnicity*,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8) Burnes, R. & Eicher, J. (1992). *Dress and Gender*, Providence: Berg.
 - 9) Eicher, J. & Sumberg, B. (1995). World fashion, ethnic and national dress, in Joanne Eicher (Eds) *Dress and Ethnicity*, Providence: Berg, 295-306.
 - 10) 황춘섭 (1997). 세계전통복식, 서울:수학사, 9-13.
 - 11) Baizerman, S., Eicher, J.B. & Cerny, C. (1993). Ethnocentrism in the study of ethnic dress, *Dress*, 20, 19-32.
 - 12) Roach, M. & Musa, K. (1980). *New Perspectives on the History of Western Dress*, New York: Nutriguides Inc.
 - 13) Nakagawa, K. & Rosovsky, M.(1995). The case of the dying Kimono, In Mary Ellen Roach-Higgins, Joanne Eicher & Kim Johnson (Eds), *Dress and Identity*, NY:Fairchild, 471-480.
 - 14) Pannabecker, R.K.(1988). The cultural authentication of ribbon:use and test of a concept,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7(1), 55-56.
 - 15) Eicher, J. & Erekosima (1995). Why do they call it Kalabari? in Joanne B. Eicher (Eds), *Dress and Ethnicity*, Providence:Berg.
 - 16) Bouchet, D. (1995). Marketing and the redefinition of ethnicity. In Janeen Costa & Gary Bambossy (Eds), *Marketing in a Multicultural World*, California: Sage Publication, 68-104.
 - 17) Cerny, C.(1989). Socio-cultural trends in the study of ethnic dress, *Proceedings of the 15th annual meeting of the Costume Society of America*, 11-12.
 - 18) Said, E. (1978). *Orientalism*, NY: Random House
 - 19) Steele, V. (1989). Theoretical approaches to ethniccostume and textiles, *Proceedings of the 15th annual meeting of the Costume Society of America*, 7-8.
 - 20) 深井晃子(1996). *Japonism in fahion*. 東京:京都服飾文化研究財, 16-27.
 - 21) Kim, H. & Delong, M.(1992). Sino-Japanism in western women's fashionable dress in Harper's Bazar, 1890-1927.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1(1), 24-30.
 - 22) Kondo, D.(1997). *About Face: Performing race in Fashion and Theater*, NY: Routlege.
 - 23) Dickson, M. & Littrel, M(1998). Consumers of ethnic apparel from alternative trading organizations: a multifaceted market, *Clothing and Textile Resesarch Journal*, 16(1), 1-10.
 - 24) Martin, R. and Koda, H.(1994). *Orientalism- Visions of th East in Western Dress*, New York: the MetropolitanMuseum of Art. 87-88. 74-75, 75-77.
 - 25)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대사관 (1996), 「베트남」, 대한민국주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대사관
 - 26) Rogers, E.M. & Shoemaker, F.F.(1971). *Communication of Innovations: A Cross-cultural Approach, 2nd Ed.*, NY: Free Press.